



키움증권, 글로벌 WM센터 해외채권 중개 서비스 개시

최근 미국이 금리를 3차례 인하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도 2016년 이후 3년 만에 금리를 2차례 인하해 1%대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외화자산(외화채권, 외화 펀드 등)의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

키움증권은 금융시장 환경과 고객의 투자 니즈에 맞게 외화채권, 외화채권 ETF Wrap, 달러 RP 등 다양한 외화자산 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외화자산 WM(자산관리) 조직인 키움증권 글로벌 WM센터의 문을 열고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접근이 어려웠던 개인들의 해외채권투자가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채권의 강점은 국내 금융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환 헤지를 통해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도 있으며,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환을 노출해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역외 금융시장에서 개인들의 소액 해외채권 투자는 매우 활발하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개인들의 해외채권 투자 규모나 금융기관의 거래시스템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관련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키움증권은 해외채권 중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우량 해외채권을 발굴해 해외채권 중개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해외채권 시장은 국가별, 통화별, 등급별, 만기별로 다양한 포트폴

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가 가능하다. 해외채권 투자는 개인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투자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가 부족해 초기 투자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외채권 투자 시 기본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통화, 국가, 발행기업 선택뿐 아니라 투자 전반에 거친 컨설팅이 필요하다. 키움증권 글로벌 WM센터는 업계 최고 전문가들의 투자 컨설팅을 바탕으로 소액단위(1천달러~20만달러)의 투자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글로벌 WM센터 박종철 이사는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을 주도한 단칸 세대가 이른 부(富)와 20년 이상 지속한 제로금리가 개인투자자의 해외채권 투자 쇼핑에 나서게 하는 견인차 구실을 했다”며 “최근 한국 경제와 금융환경이 1990년대 초반 일본과 유사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국내 개인들의 해외채권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국내 민간부문, 특히 가계와 기업에 유보된 금융자산 규모와 달러 예금 등 외화자산의 수요에 비춰볼 때 민간부문의 해외채권 투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❶